

목포 삼학도 물길 다시 흐른다

市, 섬 주위 2242m 수로 만들어 19일 통수식

매립에 따라 물으로 변했던 목포시 삼학도(三鶴島)가 차츰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 주변 물길공사를 마치고 오는 19일 오후 4시 대삼학도 교량에서 '삼학도 복원화사업 호안 통수식'을 갖는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천243억원을 투입해 삼학도의 옛 모습을 되찾는 복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 삼학도는 지난 1968~1973년 섬 외곽에 둑을 쌓고 안쪽 바다를 매립해 100m 이상 떨어진 육지와 연결됐다. 하지만 섬의 산은 매립으로 물으로 변한 중·소 삼학도 사이에 길이 760m, 폭 20~40m, 깊이 2m의 수로를 파 분리하는 등 섬 주위에 모두 2천242m의 수로를 만들었다.



복원된 삼학도 수로.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 목포 여객선터미널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목포시는 지난 2000년 삼학도 일대 57만4천850m²를 공원으로 지정, 섬 복원과 주변 정비에 나섰다. 매립으로 물으로 변한 중·소 삼학도 사이에 길이 760m, 폭 20~40m, 깊이 2m의 수로를 파 분리하는 등 섬 주위에 모두 2천242m의 수로를 만들었다.

수로 위 10곳에 다리를 설치해 시

민들이 섬에 드나들 수 있게 했다. 평지처럼 된 면적 3천600m², 해발 15m의 소삼학도에는 10만m²의 흙을 쌓아 동산을 조성했고 대삼학도(면적 10만4천m²)와 중삼학도(4만1천m²)도 흙으로 복원우고 나무를 심었다.

3개 섬의 둘레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만들었다. 대삼학도에는 난

영공원을 꾸몄고 중삼학도 앞에는 8월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착공한다.

목포시가 최근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에 대한 제안공고를 마감한 결과 8개 업체가 응모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응모업체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각각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작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목포시는 삼학도 공원 내에 자리한 한국제분 공장건물을 사

일로 20기(높이 38m) 처리방안에 대해 용역과 의견조사 등을 통해 6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내년말 삼학도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목포의 대표적인 친수공원이자 관광자원으로 주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